

♠ 휴지기간중의 보일러 보존법 ♠

증기보일러의 수위는 총 만수량의 3분의 2가량에서 유지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증기가 차지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채난기가 끝난 하절기에 보일러를 방치하면 보일러의 수관이 PH 및 용존산소에 의해 부식이 진행 된다. 보일러를 정지해 놓으면 증기가 있어야할 공간에 공기(산소)가 유입되게 되어 수관을 부식시킨다. 실제 난방용 보일러가 수관 파열된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상부수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보일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보일러를 보관해야 한다.

1. 만수보존법

보일러 수관에 먼저 만수보존액을 넣고 가동 중에 증기가 존재하는 부분을 산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강제급수를 통해 만수시키면 된다. 만수보존액은 보일러 내부의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용존산소를 제거하고 PH를 유지시켜 부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만수보존시 만수보존액은 반드시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약품대금을 절약하기 위해 만수만 시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해서는 안되는 방법이다. 만일 약품을 넣지 않을 때는 만수시키는 것보다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밸브만 닫아 놓는 방법이 훨씬 좋다. 만수보존법은 휴지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2. 건조보존법

이방법은 만수보존법과는 반대로 수관에 있는 모든 물을 배수시켜 수관내부를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건조보관법으로는 1) 질소봉입법 2) 생석회투입법 3) 실리카겔 투입법이 사용된다. 건조보관방법은 6개월이상 장기간 정지시 사용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관류보일러에서는 사용이 어렵다.